

튀르키예에서 만나는 '우리들의 삶' 이야기

 **김정숙** 교수의 필름에세이

 **고봉수** 감독 '굴레굴레'

영화의 타이틀 '굴레굴레 (Gule-Gule)'는 '웃으며 안녕'이라는 튀르키예어다. 필자가 튀르키예를 가고자 했던 것은 열기구 때문이었다. 그보다 훨씬 전, 영국 남부해안도시 본모스에서 열기구를 타보기는 했지만, 튀르키예처럼 온



고봉수 감독 '굴레굴레'.

(주인디스토리 제공)

하늘을 수놓은 열기구는 사진만으로도 장관이었고, 직접 타본 감회는 그보다 훨씬 더 컸다. 생애 최고의 일출을 맞으며 눈을 하늘로 돌려도, 지상으로 돌려도 아름답고 황홀하기까지한... 가히 여행의 백미였다.

영화 '굴레굴레'의 배경은 바로 그곳 튀르키예의 카파도키아다. 영화 '스타워즈' 시리즈에서 우주의 지형으로 삼을 만큼 자연의 장엄함이 있는 카파도키아는 두어 차례에 걸친 화산폭발로 이루어진 지형이다. 수천만 년 전 형성된 주변의 화산들, 500만년 전의 화산재로 응회암이 만들어졌고, 200만 년 전의 용암이 뒤덮으면서 현무암이 생성, 기후로 인한 침식 및 풍화작용은 가히 신의 작품이 아닐까 싶은 낯설고 괴기하기까지 한 자연의 신비로움을 만들어냈다. 카파도키아 패키지 투어에 참여한 한국인 관광객들. 자

동차부품 무역회사에 다니는 대식(배우 이희준)은 계약을 위해 튀르키예에 왔다가 상사인 팀장 원창(배우 정춘)과 함께다. 일행 중에는 재결합을 염두에 두고 여행 온 이혼부부 병선(배우 신민재)과 정화(배우 서예화)가 있다. 이밖에 한국어를 유창하게 잘 하는 가이드 이스마일과 브이로그에 빠져 있는 50대 엄마와 20대로 보이는 두 딸이 투어 일행이다.

이들 중 대식과 정화는 대학시절 구애하다 차인 관계. 이들의 운명적 만남과 개인적 문제가 여행이라는 매개를 통해 하나씩 돌씩 드러나고 묵은 갈등을 파헤쳐보는 어려운 일도 감독은 시도한다. 왜냐하면, 친한 사람끼리도 여행하다 갈등을 만들기 십상이라는 경험칙들이 우리 주변에는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면, 감독은 참 낙천적인 사람인가 싶다.

(배우자에게 운전을 배우면 부부싸움 각이라는데) 배우자 이주에 작가와 함께 시나리오를 만든 점도 그러하거나 이 영화에도 전작 '델타 보이즈' (2016·대본 30%, 애드립 70%로 만든 작품), '빛가리' (2022)처럼 실험성을 과감하게 시험하는 점이 그러하다. 부연하자면, 과감하게 일반인을 캐스팅한 점, 튀르키예 사람들을 그 직업 그대로 기용한 점 등 감독은 즉흥성과 순발력을 심분 활용한다.

그렇지만 관객의 입장에서는 실험적 습작의 단계로부터 좀더 나아가 프로페셔널하기를, 치밀한 기획을 바탕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 스토리 전개를 위한 대사들이 적절했는가? 상사가 부하직원을 향해, 남편이 아내에게 저렇게 막말하는 것이 괜찮은가? 대사 중에 비속어에 가까운 속어가 좀 많지 않았는가?

감독의 친분으로 기용한 고봉수 사단의 배우들이 적절한 배역으로 보이지 않은 팀 등이 있어서 어나더 클래스, 다른 세계관을 바라보는 듯한 이질감이 들었다. 그런가 하면, 연기력으로 영화의 균형을 잘 끌어가는 배우 이희준은 몸짓, 표정, 시선 등으로 침묵 속 포커 페이스와 방어기제의 내면연기를 잘 표현해주어, 배우 이희준에 대한 새로운 시선도 생겨났다. 배우 서예화와 케미스트리도 잘 어우러져서 신비한 카파도키아를 배경 삼아 스토리의 흐름을 잘 이어간 듯하다. OST 두 곡도 어우러짐에 한몫을 했다. 대식과 정화가 낙타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에 최유리의 '동그라미'가, 그들이 열기구를 배경으로 지상과 공중에서 회한인 듯 사념에 빠져 있는 동안에 허희경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속삭이듯 울조리며 흐른다. "매일 이렇게 살아가는 게 가끔은 너무 서러워"라는 가사는 대식과 정화의 속내뿐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이야기처럼 들린다.

감독은 영화를 통해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 지금 나에게 나아진 게 아무것도 없더라도 지난날의 나에게, 우리에게 안연이라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부여하고 싶었을 것이다. 매우 적절한 단어 '굴레굴레'라 말하며, 필자는 해외를 가면 독특한 화장실 사인, 독특한 가로등 등 디자인의 특이함을 카메라에 담오는 편이다. 영화에서는 호텔 욕상에 카펫이 깔려 있고 빈백에 기대어 편안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등장한다. 이 공간을 비추는 가로등이 열기구 모양이라 눈길이 갔다. 요즘 들어 욕상을 캠핑장처럼 꾸미는 게 붐이기도 한데, 이런 튀르키예 식도 이채로울 것 같다.

백제예술대 명예교수



'블츠' 잡은 이재명, 이제 광주e스포츠를 그랩할 차례



취재수첩

정성현

취재1부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함께 e스포츠 산업 활성화도 본격적인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17일 광주를 찾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는 조선대 광주e스포츠경기장에서 프로게이머들과 함께 라이엇게임즈의 '리그오브레전드(LoL)'를

직접 체험했다. 챔피언 블리츠크랭크로 스킬 'QWER'을 누르는 이 대통령의 모습은 청년층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그는 게임 산업을 문화콘텐츠이자 경제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는 당찬 포부도 함께 밝혔다.

국내 최대 규모의 광주e스포츠 경기장은 2020년 개관 이후 발로란트 국제대회와 전국 장애인 e스포츠 대회 등 주요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왔다. 하지만 연평균 활용률이 20%대에 머무는 저조한 현실은 광주의 뛰어난 e스포츠 인프라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

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밝힌 "e스포츠 산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벗기겠다"는 약속은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광주 방문 당시 이 대통령은 프로게이머 '무릎' 배재민 선수와 박정석 브리온e스포츠 단장 등 현장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특히 배재민 선수는 "은퇴 후 지도자 양성과 차세대 선수 지원을 위한 체계가 부족하다"며 "국가적 차원의 선수 은퇴 후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공감하며 민주당 내 게임특별위원회 신설을 통해 정책적 기반 마련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의 e스포츠 지원 정책은 단순히 공약에 그치지 않고 정부 출범 이후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게임물 등급분류 민간 자율화, 확률형 아이템 규제 강화, 중소·인디게임 지원 확대 등 게임 업계의 오랜 숙원을 해결할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게임 질병코드 도입 유보 및 게임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캠페인은 게임을 즐기는 청소년과 청년층에게 큰 환영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광주가 진정한 e스포츠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과 함께 지역 고유의 독자적인 콘텐츠 발굴이 필수적이다. 이재명 정부가 게임 산업을 진흥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적극 지원을 천명한 만

큼, 광주역시 지역 특성을 잘 살린 전략으로 국가적 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 특히 리그오브레전드 월드챔피언십(월드컵), 미드시즌인비테셔널(MSI), PUBG 글로벌 챔피언십 등 글로벌 수준의 주요 행사를 유치해 지역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과거 e스포츠를 '골렘도시 핵심상품'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밝힌 만큼,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가 뜻을 같이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광주가 e스포츠 메카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다. 이 대통령 또한 후보 시절 말했던 지역 e스포츠 공약을 지키기 위해 본격적인 '정책 그랩'에 나설 차례다.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복고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

